

## 새 조국건설시기 국립영화촬영소를 잘 꾸리고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기 위한 투쟁

공 영 일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해방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일대 경사였으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광활한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었다.

삼천리강산을 뒤흔드는 감격의 열풍속에 조선인민앞에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적발전과 함께 참다운 민족문화건설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의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는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인민들을 새 민주조선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보시고 국립영화촬영소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며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선전부에서는 최단기간내에 국립영화촬영소를 잘 꾸리고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 제5권 124페이지)

해방후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인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여 우리 인민들을 민주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새 조국건설에로 고무추동하는것은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영화예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가 대단히 미약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우리의 민족영화발전을 억제한 결과 해방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영화창작사업이 심히 부진상태에 있었으며 영화촬영소 하나 변변한것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5월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하신 연설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와 주체36(1947)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하신 결론 《국립영화촬영소를 설립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국립영화촬영소를 잘 꾸리고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종합적영화제작기지인 국립영화촬영소를 잘 꾸리고 시보영화, 기록영화, 예술영화들을 많이 제작방영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국립영화촬영소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

사실 해방직후에 조직된 영화반에 이어 영화제작소가 나왔으나 규모가 작고 모든것이 불비하여 예술영화는 물론, 시보영화와 기록영화도 제대로 제작할수 없는 형편이었다.

영화예술을 발전시키자면 결정적으로 규모가 크고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갖춘 영

화제작기지를 가지고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 직속하는 국립영화촬영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도록 하시고 국립영화촬영소를 잘 꾸리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화제작소를 모체로 하여 국립영화촬영소를 설립하도록 하시고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나라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필요한 자금도 아낌없이 보장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국립영화촬영소에 실내촬영장과 녹음실이 새로 꾸려지고 편집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갖추어져 짧은 기간에 영화예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지로 전변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영화예술인대렬을 꾸리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영화부문의 기술자가 한사람도 없는 실태로부터 영화부문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기 위한 영화기술원양성소를 내오도록 하시고 이 부문의 기술, 보급일군들을 통일적으로 양성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편 해방전부터 예술부문에서 종사해온 오랜 작가, 예술인들이 새로운 민족영화창조에서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바쳐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예술인들이 재생의 기쁨과 희망을 안고 해방된 조선의 첫 영화예술인대오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예술인들속에서 일제가 남겨놓은 사상독소를 청산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사상공세를 짓부시며 단결을 강화해나가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5월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문학예술분야에서 일제사상잔재를 청산하며 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문화인, 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건설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단결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문화전선의 투사로 불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시보영화, 기록영화들을 많이 제작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시보영화는 민주건설로 들끓는 우리의 현실을 인민들에게 제때에 생동하게 보여주어 그들의 건국투쟁을 크게 고무하고 민주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화면자료로 남길수 있다. 기록영화는 우리 나라에 대한 훌륭한 직관교재로 될뿐아니라 후대들에게 넘겨줄 귀중한 력사적자료로, 새 조선의 발전모습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대외선전자료로도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선 국립영화촬영소에서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보여주는 시보영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투쟁모습도 찍고 국가적인 행사도 제때에 소개하는 보도선전물로서 우리가 만드는 시보영화는 《뉴스》라고 하지 말고 《조선시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영화제작일꾼들이 시보영화제작에서 시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었다.

우리의 시보영화는 현실에 있는 이러저러한 사실이나 사건의 단순한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더우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뉴스》와 같은 흥미본위적이며 상품광고들을 소개하는 흥정물로 되어서는 안된다.

시보영화의 사명은 당정책과 함께 숨쉬고 당정책관철으로 근로자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무기라는데 있다. 이로부터 우리의 시보영화는 마땅히 높은 정치사상성과 시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강한 선동성과 호소성이 울려나와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불타는 창작적열의를 발휘하여 주체37(1948)년 3월에 《조선시보》 제1호를 내놓았다.

《조선시보》 제1호에는 만경대혁명학원 개원식과 황철의 제3호 용광로의 첫 출선, 뿌라하에서 진행된 제1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대표단환영, 축구경기 등의의있는 소식들이 다양하게 편집되었다.

《조선시보》는 조선영화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으며 제1호에 이어 새 조국건설시기만 하여도 특보를 포함하여 40여편이 나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시보영화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화폐개혁을 비롯한 역사적사실들,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초과완수를 결기한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증산투쟁모습들을 반영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새 조국건설에 불려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또한 역사자료나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록영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해방후 《우리의 건설》로 자기 발전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기록영화는 《남북련석회의》, 《새 조선》을 비롯하여 역사적사실과 들끓는 현실을 제때에 높은 사상성과 정론성을 가지고 방영되었다.

인민정권의 수립과 공고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기록영화로는 《민주선거》[주체35(1946)년 11월], 《인민의 환희》[주체36(1947)년 10월], 《승리의 민주선거》[주체39(1950)년] 등이 제작되었다.

이 영화들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정권의 성격을 시사하고있다.

민주건설을 반영한 기록영화로는 《자라나는 민주모습》[주체37(1948)년], 《민주건국》[주체37(1948)년] 등이 제작되었다.

이 영화들은 자립적민족경제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애국적증산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행사기록영화 《1947년 8월 15일》[주체36(1947)년], 《승리의 5.1절》[주체37(1948)년] 등에서도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보여주고있다.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반영한 기록영화 《인민군대》[주체37(1948)년]도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을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전체 열병식참가자들의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정규 무력건설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하고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계승자, 조선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이라는것을 시사하고있다.

이밖에 기록영화 《영원한 친선》[주체37(1948)년], 《친선의 노래》[주체38(1949)년] 등 국제적친선을 보여주는 영화들도 있다.

이처럼 새 조국건설시기에 제작된 시보영화와 기록영화들은 민주주의적변혁과 역사적사실, 새로운 현실이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인민대중을 거창한 창조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자체의 힘으로 예술영화를 만들어내놓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졌다.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인민들속에서 문화계몽사업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우리 조국의 자랑스런 역사와 해방된 새 조선의 약동하는 현실을 반영한 예술영화를 만들어내는것은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는 영화문학을 쓸만 한 소재가 없기때문에 예술영화를 제작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사다가 돌리자고 하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벅찬 현실에는 인민대중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좋은 사실자료들이 많았다. 특히 간악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조국의 해방을 성취한 항일무장투쟁은 역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예술영화를 많이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국립영화촬영소에서 예술영화 《내 고향》을 완성한 다음에 나라의 주인이 되어 새 조국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형상한 예술영화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시었다.

우리가 만드는 첫 예술영화는 주제부터 의의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고무하며 교양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처음으로 예술영화를 만드는데서 매우 심중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발표되었던 장편소설을 각색하자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 고전작품을 영화로 하자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화예술인들에게 해방된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할수 있는 주제설정방향을 명확히 가르쳐주시고 이러한 주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들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수많은 혁명렬사, 혁명투사들의 불굴의 투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서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리하여 주체38(1949)년에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

한 정신세계와 애국주의를 형상한 예술영화 《내 고향》이 창작되게 되었다.

이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예술영화의 첫 필름을 보아주시고 영화제목을 어느 한 소설제목과 같이 《고향》이라고 하지 말고 《내 고향》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도 주고 친근감도 준다고 일깨워주시기도 하시며 창조과정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우리 로동계급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족점을 나타낸 예술영화 《용광로》에 대하여서도 창작가들이 당적안목을 가지고 바로 형상하도록 수정방향을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의 예술영화는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국립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된 훌륭한 영화들은 우리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우리 나라 영화예술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해방된 조선의 첫 영화예술인대오에 들어섰던 예술인들은 그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정속에서 우리 당의 문예전사로 빛나는 삶을 받아안았으며 주체문학예술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명작창작으로 수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며 당의 척후대, 나팔수로 복무해온 전세대 문예전사들의 투쟁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사상전선의 기수가 되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국립영화촬영소, 시보영화, 기록영화